

특집
논문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제' 실현*

삶을 노동으로 환원하는 체제에 저항하다

김보현 _성균관대학교 박사

논문요약

본 연구는 1979년 7월 - 1980년 2월 중에 해태제과 여성들이 실천한 '8시간 노동' 투쟁의 조건과 내용, 관련 행위자들을 서술한다. 서술은 문헌자료 조사와 구술자료 수집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다음의 세 부분들에 무게를 둔다. ① '자본주의 정신'과 '시간'의 위상(투쟁의 발단 조건), ② 근로기준법(투쟁의 무기), ③ 남성 통치(억압의 질서). 서술은 그 투쟁의 의미와 함께 박정희 정부 시기 노동운동, 경제성장의 조건 및 성격에 관한 논의·성찰과 연결된다.

■ **주요어:** 남성 통치, 노동, 시간, 여성, 자본주의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3481).

1. 머리말

나는 1979년 7월부터 1980년 2월까지 해태제과 영등포공장에서 전개된 '8시간 노동' 투쟁의 조건과 내용, 관련 행위자들을 서술한다. 나의 서술은 문헌자료 조사와 구술자료 수집¹⁾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투쟁의 의미와 박정희 정부 시기 노동운동, 경제성장의 성격 및 기초에 관한 논의·성찰과 연결된다.

박정희 정부 시기 노동운동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주목하지 않았다.²⁾ 이 현황은 놀랍기까지 한데 왜냐하면 그동안 당대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밝혀온 문헌·구술자료들이 저임금과 함께 매년 강조한 부분이 바로 장시간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정희 정부 시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사회가 현대자본주의 국민경제로 전환해 나간 기간으로 개별/사회적 차원들에서 '시간'의 의미가 크게 변화하고 '시간'의 배분 및 구성이 중대한 삶의 문제가 되어간 연대이다. 기존 연구

1) 필자는 아래의 투쟁 참여자 4명과 면담을 했다.

구술자(가명)	출생	재직	면담
김선희	1955, 전북 진안군	1975-85, 초콜릿부·껌부	2019/07/05, 07/31, 08/21
이은성	1956, 전북 옥구군	1974-80, 비스킷부	2019/08/07, 08/13, 09/04
장미화	1959, 전북 장수군	1978-83, 껌부	2019/08/27
한민아	1958, 서울 종로구	1976-80, 비스킷부	2019/04/27, 05/25

2) '시간'을 주제로 삼은 보기 드문 예가 류제철(2010)인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 운동을 추적하지 않고 주어진 비노동시간의 현황과 활용 내역, 이를 둘러싼 갈등을 서술하는 데에 그쳤다.

들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여타 실천과 사건, 인물에 집중했다. 연구자의 언어로 서술·재현·평가된 사례들 가운데 노조운동이 아닌 것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분신 또는 대규모 폭력처럼 극한의 형태로 웅변한 경우들뿐이다(김준 2006; 조동원 2020).

과거의 연구들은 특히 여성들의 민주노조운동을 조명했다.³⁾ 당시에 민주노조운동이 여성의 실천 범주에 가까웠던 것은 사실이다. 동료 남성들은 대부분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협력하지 않았고 자본과 국가의 탄압에 가담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노동운동들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에서만 성별 분절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공격적 언어와 행동으로 여성들을 제압하려 한 사람들이 기업과 국가기관 같은 이른바 공적 영역의 남성에게 한정된 것도 아니다. 여성들과 적대한 이들 중에는 그들의 가족·친척이 포함되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경제의 성장을 비판적으로 논한 연구자들은 그것의 부정적 귀결과 국가·자본의 대외 의존성 간의 강한 인과관계를 상정했다. 비근한 예로 국가와 자본이 수출 공업화에 전념했고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을 높이려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했으며 이를 위해 농수산물 가격을 역시 억눌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그 실제 역사의 인과성을 크게 과장한 것이다. 1960~1970년대 내수부문 제조업체라고 해서 노동조건이 별다르지는 않았다. 또 1987년 이후 노동자

3) 남화숙(2014)과 박현미(2019) 등이 남성 노동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 산하의 여러 지부들을 포괄한 얼마 되지 않는 연구 사례들이다.

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그 국면에 내향적 공업화 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⁴⁾ 기업·국민경제에서 생산된 가치가 어떻게 분배·재분배됐느냐 하는 논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행위자들 간의 구체적 관계들을 살펴봐야 한다.

이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의 기여가 인정될 만하다. 그들은 가족과 국가, 개인과 기업을 관류한 남성 통치성(masculine governmentality), 즉 젠더(gender)의 차원을 드러내고 문제화함으로써 고속성장기 한국경제의 서술·평가에 구체성을 한층 더 불어넣었다. 그들의 역사 비판·성찰은 성장주의의 관점에서 다만 ‘성공 서사’를 반복한 보수적 논자들은 물론이고 불균형과 소외, 희생 등에 주목한 진보주의자들조차 의식/무의식적으로 주변화·사상한 성장의 또 다른 기초와 의미를 조명하는 성과로 이어졌다(Sung-Kyung 1997; 김현미 2002; 김은실 2002; 전혜진 2003; 장미경 2005, 2006; 김원 2006; 김경희 2006; 강남식 2006; 문승숙 2007). 하지만 이들 중에는 남성 통치의 양상을 전근대의 잔여물로 이해하거나 군사주의와 민족주의, 공업화 정책처럼 가부장주의 질서 이외의 부분들에 더 논의의 비중을 두는 경향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공적 영역의 차별/평등 담론을 넘어선 논제 확장에 소극적이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노동운동사와 이를 다룬 연구의 특징 및 경향에 비추

4)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이 1970년대에는 20%대였고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말까지 30%대를 유지했다(송의영 2015, 428).

어 보면 해태제과 8시간 노동 투쟁은 특별하다. 우선 그 투쟁은 선구적이었다. 공식 제도 면에선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708호, 1974/12/24 일부개정)이 1일 노동 8시간 및 초과 노동 2시간 제한, 강제노동과 여성·연소자 심야노동 금지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임금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했다(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moleg.go.kr/>). 그러나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처럼 근로기준법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정세가 형성되기까지 유명무실했다. 그리고 노동자 자신들이 시간을 둘러싼 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못했다.⁵⁾ 노동운동의 초점은 임금 인상과 체불급여 해결, 노조 자율성 확보 등에 맞춰졌다. 반면에 노동일 단축을 단독 요구 사항으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확산시킨 유일한 사례가 해태제과 8시간 노동 투쟁이다.

그 투쟁은 임금 총액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을 무릅쓰고 결단한 것이기에 또한 특별하다. 임금이 시간급과 성과급을 합한 형태였으므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개별 노동자의 정기급여는 감소가 예상됐다. 일단 자본 측이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였지만, 받아들여더라도 시간급을 인상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가중된 내핍을 감수해야 했다. 논리 차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돈’의 기능들과 위상(Simmel 2013[1900], 510-828)을 고려할

5) 1967년 한국모방, 1973년 대한모방, 1975년 평화시장과 YH무역, 1976·78년 대일화학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 사례들이 파악됐다(원풍모방해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 1988, 26-27; 영등포산업선교회40년사기획위원회 1998, 154-160; 유경순 2005, 156-158; 전YH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1988, 64-66; 송효순 1982, 64-73, 97-99, 132).

때 평범한 공장 노동자에게 임금의 증감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정부 시기 임금노동자 다수가 빈곤과 사회정책(사회연대)의 부재 속에서 개별 가족 단위의 생존·복지 전략에 매달리고 고용 유지와 임금 증액을 위해 자본 측의 시간외노동(심야·철야·휴일 노동) 및 단순성과급(일명 '도급제') 운용을 받아들였다(김준 2002, 169-174; 김보현 2017). 그러나 해태제과 8시간 노동 투쟁의 주역들은 행위 준칙들의 위계에서 비노동시간 연장을 금전 증식보다 더 상위에 놓은 것이다.

해태제과 8시간 노동 투쟁은 노조운동이 아니었다. 그 행위자들은 자본 측의 충실한 대항자였던 노조와 극명하게 대립했다.⁶⁾ 그 투쟁은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일상적 고통과 무의미한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영등포산업선교회(이하 산선) 회원들의 활동과 이에 호응한 일반 노동자들의 결행으로 시작됐다.

해태제과 8시간 노동 투쟁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다수가 그랬듯이 노동/자본의 대립과 여성/남성의 대립이 중첩된 지형을 만들어냈다. 공장의 노동자 대부분이, 또 8시간 노동 투쟁의 행위자 모두가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그 중첩성은 노동/자본 경계를 넘어선 공장 안팎의 남성들에 의해 조성됐다. 투쟁 주체들은 노동일 8시간을 주장했을 뿐인데, 이사 및 관리·감독직 남성들과 노조 간부직 남성들, 기술직 동료

6) 8시간 노동 투쟁이 전개되는 와중에 해태제과 노조 지부장은 한 일간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무리 법에 규정됐다 하더라도 이 규정(1일 8시간 노동 규정)을 지키기에는 생산재고 및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 기업이 살아야 우리 근로자들도 일터를 잃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한국일보 1979/08/28, 3면).

남성들, 취업 중개자 남성들, 가족·친척 남성들이 함께 그녀들을 저지·굴복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은 고속성장기 한국의 경제 및 노동과 연결돼 있던 젠더 관계를 다시 한번 숙고·성찰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2.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사회의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의 핵심적 특징은 환금성이다. 즉 시계라는 기계장치에 의해 계측되는 시간이 돈으로 평가·교환된다. 그래서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 같은 이도 “시간은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거의 고전적인 순수한 형태”를 보여준다고 썼다 (Weber 2001[1905], 14).⁷⁾

박정희 정부 시기 해태제과 자본 측의 그 ‘자본주의 정신’은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을 부과하는 형태로 실천됐다. ‘자본주의 정신’에 의거할 때 시간은 분명히 수익이지만 동시에 비용이기도 하다. 임금이

7) 베버가 인용한 부분은 이렇다. “시간은 돈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하루에 노동을 해서 10 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절반 동안 그냥 돌아다니거나 빈둥거렸다면 그렇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에 6펜스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에 더해 5실링을 사용하거나 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간은 ‘벌어들이는/지출하는 돈’이다.

〈표 1〉 해태제과 영등포공장 여성 노동자의 월급(1979년 8월 현재)

	입사(년)	기본 시간급(원)	임금 총액(원)
일공(수작업 포장)	1978	37,625	70,170
	1976	39,375	73,433
	1974	40,625	75,765
기계공(기계운전 포장)	1978	39,500	81,073
	1976	41,375	84,921
	1974	42,875	88,000

란 무엇인가? 임금은 자본가를 비롯한 고용자들이 피고용 노동자들의 일 정 시간을 구매하면서 치르는 대금이다. 그러므로 어떤 고용자가 오로지 금전 증식이란 목적을 우선시하는 합리성의 보유자라면 자신이 구매하는 노동시간의 단위 가격을 가능한 한 낮추려고만 할 것이다. 바로 해태제과 경영진이 그랬다. 그들이 지급한 임금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당시의 사회적 생활·생계임금 수준들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간의 거래 가격이 ‘후려쳐진’ 것이다.

산선의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에서 8시간 노동 투쟁이 전개된 1979년 8월 현재 1일 12시간 2교대 여성 노동자의 월급은 기본 시간급과 시간외 수당 및 성과급을 합해 7만~8만 원 선이었다(영등포산업선교회 1979). 그런데 통상 저임금이라 평가되는 당시의 임금을 국가 통계에서 확인해보면 1979년 현재 전 산업 노동자 평균 146,442원이고 전 제조업 노동자 평균 124,343원이었다(노동청 1980, 162, 164). 그리고 후일 연구자들이 ‘어용’이라 평가한 노총조차 생필품 가격을 근거로 1979년도 단신 노동자 최저 이 론생계비를 6만 5,000원으로 산정했다(조선일보 1979/04/20, 2면).

이 같은 임금의 실질성을 헤아리자면 그 가운데 정규 급여가 아닌 특별 수당의 비중이 무려 50% 내외였고, 당시가 빈번한 국가규제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이 기록된 때임을 생각해야 한다.⁸⁾

해태제과 자본 측은 그렇게 동일 양의 시간이라면 최대한 싸게 구매하면서, 동시에 동일 가격의 시간이라면 최대한 늘려서 사용하고자 했다. 시간은 분명히 비용인데 또한 수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시간 근무 형태가 12시간 2교대 노동이었다. 노동자들은 부서마다 주야 2개 조로 편성됐고 주간조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하면 바로 뒤이어 야간조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제도가 운용된 것이다(해태제과 여성 근로자 1979).

12시간 2교대 노동은 그나마 해태제과 자본 측의 노동시간 연장 의지가 다소 조정된 결과였다. 그들은 ‘일요일 노동’과 속칭 ‘곶빼기 노동’을 여성 노동자들의 거부 투쟁으로 중단한 1976년 3월까지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곶빼기 노동’은 토요일 야간조에게 다음날 정오 무렵까지 일하도록 하여 한 번에 17-19시간 노동을 수행하게 하는 주말 근무제였다. 그리고 그 시점까지 해태제과 여성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은 식사 30분이 전부였다(순점순 1984, 20-27; 이은성 2019/08/07, 08/13; 김선희 2019/07/05).⁹⁾

8)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75년 25.3%, 1976년 15.3%, 1977년 10.1%, 1978년 14.5%, 1979년 18.3%, 1980년 28.7%이었다(이제민 2015, 80).

9) 순점순(1984)의 실제 필자는 1979~1980년 8시간 노동 투쟁과 1984~1985년 노조민주

해태제과 자본 측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그들로부터 구매할 시간을 강도 높게 사용하고자 했다. ‘시간=비용’을 더욱 절감하면서 ‘시간=수익’을 더욱 증대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1인 혹은 1개 반이 단위 물량 산출시간을 단축하도록 유인·관리하는 도급제를 병행했다. 이를테면 포장 과자 1박스의 단가를 정하고 주어진 시간에 산출된 물량만큼의 수당을 지급했다(순점순 1984, 59-60).

[동작들 사이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 없이 [과자를] 쌓아요. 인두로 지저가면서. 기계화도 그런 기계화가 없을 거예요. 손들이 하도 빠르니까. 엄청 빨라요(한민아 2019/05/25).

아휴. 점심 먹는 것도 아주 눈이 뒤집혀요. ... [식당에] 빨리 갔다 와서 빨리 더 해야 하니까. 포장을 더 많이 싸야 하니까. 도급제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 선배들이 많이 하니까. 빨리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하는 걸로 알았지(장미화 2019/08/27).

일상으로 행해진 자살한 노동 통제도 경영진의 ‘자본주의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그들에게 생산 공정과 라인, 동작은 빠르게 끊임없이 순환해야 했고 이들이 지연·정지되는 시간은 그 자체로 돈벌이의 중단이자

화 투쟁의 주역인 김금순이다. 김금순은 1984년 당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퇴사한 동료 순점순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출간했다. 김금순은 안타깝게도 오래도록 투병 중이며 필자의 면담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변 돈의 유기 처분과 다르지 않았다. 시간은 길이를 떠나 절대로 낭비되지 말아야 했다.¹⁰⁾ 자본 측의 대행자 역할을 다할 때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할 관리·감독직 인원들(과장-계장-주임-반장)이 그 통제의 직접적 수행자들이었다. 이들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감시·규율했다. 그들은 점검했고 집합시켰으며 훈계했고 시말서를 요구했다(김선희 2019/07/05; 이은성 2019/08/07; 장미화 2019/08/27).

한시가 아까워 시간을 철저히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휴가가 쉽게 용납될 리 없었다.

반장한테 얘기하면 반장이 주임한테 얘기하고 주임이 또 계장한테 얘기하고 계장이 과장한테 얘기하고. 그 사인들을 다 받아야 허락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 진짜로 생리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자한테다 ... 그게 응? 말도 안 되는 거지. 생리하니까 생리휴가를 달라는 거지. ... 근데 다른 사람도 ... 안 해준다는 거야. ...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 미움 많이 받고 그랬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거 싸우느라고(장미화 2019/08/27).¹¹⁾

그런데 이 같은 ‘자본주의 정신’은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 품행과 만날 때

10) 제조 과정의 흐름이 잠시라도 끊기는 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의 의지는 교대제 채용에서도 알 수 있다. 노동일이 몇 시간이든 교대제를 운용하면 공장은 휴지기 없이 계속 돌아간다.

11) 자본 측은 1976년 3월부터 이름뿐인 각종 휴가를 실질화한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에 그 구현의 방식들을 지속할 수 있었다. 즉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조건에 대응하여 나름의 방식대로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쫓은 것이다. 1975년 9월~1976년 2월 중에 의무적 ‘일요일 노동’ 및 ‘곰빼기 노동’의 폐지 운동이 전개됐는데 그 주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루 8시간만 일을 해서는 먹고 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시간은 꼭 일해야 하고 일당보다는 도급제로 일을 해서 기를 쓰고 생산을 올려서 봉급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해태제과 진정인 일동 1976).¹²⁾

그 투쟁이 승리하면서 휴식시간 연장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¹³⁾ 일부 여성들은 오히려 큰 불만을 드러냈다.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도급제 참여에 할애될 시간이 줄어들어 임금 총액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었다(순점순 1984, 27).

구술자 한민아는 1979년 8시간 노동 투쟁의 선봉자였으나 그전에는 ‘모범근로자’였다. 그는 집에서 가장 역할을 했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1976년 4월 입사 후 3년간 휴일 노동을 마다

12) 구술자 이은성에 의하면 “언니들”이 보여준 태도가 “반반”이었다. “어떤 언니들은 일요일에 돈 벌어야 빨리 부자가 되지. 왜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느냐. 잘못된 거다”라고 했다는 것이다(이은성 2019/08/07).

13) 당초 요구는 의무적 ‘일요일 노동’ 및 ‘곰빼기 노동’의 폐지뿐이었는데 캔디부·비스킷부의 서명 활동(200여 명 참여) 중에 휴식시간 30분 연장이 추가됐다. 자본 측은 미국 일간지에 보도가 나자 노조와 정식 교섭을 한 것처럼 포장해서 요구 수용과 함께 시간급 인상을 발표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521-522; 순점순 1984, 27; 이은성 2019/08/07).

하지 않았다. 또 과자 포장 직무와는 별개로 검수 업무를 자원했다. 그의 기억으로 약 1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한동안 부업으로 옷 파는 일까지 했다.

현장에서 옷을 팔아봤어요. ... 동대문시장 가서 옷 떼어 와서요. 한 편이라
도 더 벌겠다고. 제가 스웨터를 동대문에서 떼어 와 팔았던 생각이 나요. ...
잠을 쪼개면서 한 거죠. 잠을 쪼개면서.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오래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한민아 2019/04/27).

여성 노동자들은 가난했다. 저마다 사정의 절박함이 달랐으나 그들에게
가난이 아니라면 굳이 자신들의 시간을 판매하고 힘겨운 노동을 감수하면
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이점은 취업 목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였다. 가
난을 털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그들은 어서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노동)시간은 돈’이었으므로 더 많이, 더 빨리 일했다. 많은 이
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근면과 성실’을 조절하는 것 외에 다른 전략을 상
상하지 못했다.¹⁴⁾

14)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조(self-help)’에 집중한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놓여 있던 정황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들은 가난과 함께 가족·사회·국가 안에서 작동한 가부장
주의로 인해 유년기부터 **앎(knowledge)**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와 자
본은 총화담론·총력동원체제의 순환·운용을 통한 고속성장·축적에 전력을 다했다. 또 노
동운동이 조직 역량과 역사·전통 면에서 매우 취약했다. 초보적 권리 확보를 위해 분투한
민주노조운동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적은 수에 불과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없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그들이 분배 개선이나

3. 신체의 한계와 의미 없는 삶

해태제과 여성들은 1979년 8월 1일, 8시간 노동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스킷부, 다음에는 캔디부와 캐러멜부, 뒤이어 껌부 여성들이 움직였다. 1975~1976년 노동시간 단축 싸움 때처럼 산선 회원들이 주도하고 일반 동료들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인원은 600~700명으로 추산됐다. 그들은 파업도 농성·시위도 기획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태업을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국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강제노동을 거부했을 뿐이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기.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공동 방침이었다. 이 행동은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표명한 집단 언어였지만 9년 전 아주 영세한 의류업체의 한 노동자가 분신으로 절규한 그것(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과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¹⁵⁾

8시간 노동 투쟁은 해태제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난 삶을 회의·반성하면서 내린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시간을 돈으로 환원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 지배된 공장의 현실을 재고한 결과였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그 현실에 “그런가 보다” 하며 임하는 것이 그들의 태

재분배(사회정책)를 가능한 전망으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 15) 이때 해태제과 여성들이 실천한 것은 ‘교대 없는 8시간 노동’이었는데 그 실천으로 그들이 요구한 대안은 ‘3교대 8시간 노동’이었다. 3교대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되면 종전보다 즐기는 하나 그들은 역시 심야 노동을 해야 했으며 이는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술자 4명과 면담한 결과로 보면 투쟁 주체들과 산선의 성원들 모두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도였다(장미화 2019/08/27). 이러다가 빠르게는 몇 달 후에, 느리게는 2, 3년 후에 각자의 계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이렇거나 보다 생각했지, 궁금한 점을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으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돈을 받는 건가 보다. ... 현실이 그러니까 으레 그렇게 해야 하나 보다 했죠. 근데 ... 금순이가 산업선교회에 가자 해서 가게 된 거예요. ... 그때부터 ... '이런 세상도 있구나!' 느낀 거죠. '아. 나도 이제. 아. 내가 사람이지. 참!' ...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한민아 2019/04/27).

이은성은 8시간 노동 투쟁의 시작을 “폭발”이라고 표현했다. “8시간 노동”의 “갈망”이 동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많이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은성 2019/08/07).

1974년에 입사했는데요. ...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운동을 할 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 할 말 하고 ...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 그런 변화(이은성 2019/08/13).

야간 12시간 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거기서 폭발한 것 같아요. ... 그때 사람들이 다 8시간을 갈망했어요. 노동자들이 다들(이은성 2019/08/07).

해태제과 여성들은 매일 매일의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 또 그

로 인해 “심각”해진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임금노동은 가난이란 실존과 긴밀히 연결된 개인·가족의 생명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양한 질환들은 물론이고 ‘재생산 기능’의 손상까지 우려할 만큼 각자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킨 것이다. 더구나 개인·가족의 생명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노동-소비 활동, 즉 ‘자연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 외에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부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사실 상 없다고 말했다. 다만 “먹고 자고 일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해태제과 여성들의 생활상으로 그들을 지치고 괴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루 ... 절반의 시간을 노동에 바치고 나면 12시간을 쪼개어서 잠도 자야 하며 ... 밥해 먹고 빨래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식물인간이 되지 않을 ... 수가 없는 것이다.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귀중한 생명을 부여받긴 마찬가지일 텐데(순점순 1984, 77).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 아주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했지.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또 동생들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니까(장미화 2019/08/27).

해태제과 여성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없기에 자신들이 “날로 바보스러워진다”고 말했다(해태제과 진정근로자 일동 1979). 그들은 한나 아렌

트(Hannah Arendt)가 명명한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과도 같이 생명 과정에 몰입된 노동에 파묻혀서 “자신의 신체(his own body) … 에 갇힌 채 세계(the world)로부터 추방돼” 있었다(Arendt 1998[1958], 112-119).¹⁶⁾

1979년 4월 초, 산선 회원들은 회관에서 수련회를 열고 ‘8시간 노동’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위와 같은 부분들에서 확인했다. 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한 후 싸움의 준비를 해나가자고 결의했다(순점순 1984, 53-55; 영등포산업선교회40년사기획위원회 1998, 173).¹⁷⁾

해태제과 여성들의 각성과 행동에는 산선이 미친 영향이 컸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소외돼 있었고 산선의 목사·실무자들이 그들을 “진짜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회 성원들이었기 때문이다(한민아 2019/05/25).¹⁸⁾

16) 해태제과 여성들의 노동 현실은 아렌트의 “노동(labor)” 개념에 부합된다. 그는 각각의 목적과 결과물에 유의하면서 “work”와 “labor”를 구별했다. 그에 의하면 “work”의 경우에 “사용”이 목적이고 인간이 그 활동과 산물의 “주인”이 되며 “자기 확신”과 “충족감”, “세계”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labor”는 “유기체의 생물학적 과정이 지시”하는 “언제나 똑같은 궤도에서 움직이는” 활동으로 “소비”가 목적이고 “오직 그 유기체의 죽음에 의해서만 중단”되는 “노고와 곤경”을 부과한다. 아렌트는 비판적 관점에서 현대자본주의를 “노동하는 사회(a laboring society)”로 파악했다(Arendt 1998[1958], 4-8, 87-153).

17) 구술자들은 인접 동료와 했던 신문 읽고 와서 이야기하기, 조 단위 야유회를 통한 토의 등을 “밑 작업”의 사례들로 들려줬다(한민아 2019/04/27, 05/25; 장미화 2019/08/27).

18) 야학 그룹(학생들이 ‘선진적 여성들’의 또 다른 조력자였다. 그러나 야학과 연결된 여성들은 수가 많지 않았고 8시간 노동 투쟁에 소극적이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산선 회원들과 함께 노조 민주화에 힘쓴 1983년 이후의 일이다. 구술자 김선희가 여기에 해당했다(한민아 2019/05/25; 김선희 2019/07/31, 08/21).

노동자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요. 산선은 ... 들어줬어요. 예. 들어줬어요(이은성 2019/08/13).

‘사람한테 입이 왜 생겼는지 아느냐?’ 그래서 ‘먹으라고 생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말을 하라고 생긴 입이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라고. ... 한 마디 한 마디가 저의 가슴을 때렸죠. ... 잠깐 자고 산선에 들러서 얘기 듣고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산선에 가서 얘기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 목사님이 ...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 우상이었어요(한민아 2019/04/27).

옛날 ... 독일 노동자들 얘기 ... 킹 목사님 얘기도 해주셨고. 철도 노동자들 그 사건,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조금씩 조금씩 깨우쳤던 것 같아요. ...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오로지 ... 돈 벌어서 ... 옷 사 입고 부모 형제들한테 보내고 ... 모아서 시집가야 한다고. ... 많이 배운 것 같아요(장미화 2019/08/27).

양자 간에 상당히 체계가 잡힌 교육이 수행된 것은 아니다.¹⁹⁾ 산선이 한

19) “확실한 노동운동가”의 훈련을 위한 체계적 교육(리더십 트레이닝)은 소수 인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기억들로 제1기 수료생인 원풍모방 이옥순과 남영나일론 김연자의 경우들을 참고할 수 있다(이옥순 1990: 94-100; 김연자 2016, 194-196). 구술자 한민아는 8시간 노동 투쟁에 참여한 후 제2기 과정을 이수했다(한민아 2019/04/27, 05/25).

결정적 역할은 해태제과 여성들이 모르고 지낸 근로기준법을 알려준 데에 있었다. “그런 말씀”은 “잠깐잠깐 이야기하는” 식으로 “수시” 이루어졌다 (이은성 2019/08/07). 그리고 그들은 누구든 준수해야 마땅하다고 믿는 국가 법률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부당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 아주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나는 근로기준법에 8시간 조항이 있다고 해서 엄청 좋았어요. 이렇게 어마 어마한 싸움이 될지는 모르고. 그것만을 가지고 외친 거죠. 옆자리 친구한테도 ‘우리, 근로기준법이 있대! 우리,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어!’(한민아 2019/04/27).

신세계 같은 이야기였죠. 왜냐면 공장에서 그냥 일만 했을 뿐이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고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몰랐고. ... 근로기준법 책을 사다 주시고 ‘돌러가면서 봐라’. ... 우리에게 필요한 조항들에 ... 체크를 해서 주셨어요. ‘이런 조항들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장미화 2019/08/27).

산선은 1975년부터 해태제과 여성들이 노동시간 단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에서 언급한 일요일 노동 및 곱빼기 노동 거부 투쟁이 그들의 “의식 수준”을 고려해 지도한 “제1단계 투쟁”이었다. 산선은 계속 회원 확장에 노력하면서 “8시간 노동제”와 관련된 “토의와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인명진 목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독려한 인물이었다(영등

포산업선교회40년사 기획위원회 1998, 169-177; 이은성 2019/08/13).

8시간 노동 투쟁의 개시일이 미리 잡혀있지는 않았다. 산선 회원들은 7월에 자본 측이 조성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투쟁하기로 결심했다(순점순 1984, 59-81). 4월의 수련회보다 앞서서 비스킷부 노조 대의원 2명(여성)이 노조를 통해 도급제 폐지를 수차례 요구했다.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노동현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도급제의 폐지 추진이 먼저 행동화된 것이다. 이때 자본 측은 7월부터 도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²⁰⁾ 그러나 7월이 되자 그들은 자동기계 도입 지연을 이유로 도급제 시행 연장을 통보했다. 생산부장과 노조는 약속 사실을 아예 부인했다.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울분”이 감돌았다(이은성 2019/08/07, 08/13). 그런데 마침 7월은 비스킷부의 비수기였다. 부서마다 비수기가 오면 1개조가 판매촉진 파견을 나가고 1개조가 기존 포장노동을 하되 주간 8시간만 일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자본 측이 갑자기 현장 작업조에게 12시간 노동을 지시했고 여성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8시간 노동 후 퇴근하는 사람들과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 간에 “소동”이 반복됐다(미상 1980). 이 시점에 해태제과 여성들은 8시간 노동제를 아직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서의 계장과 남성 노동자들이 각기 여성 노동자들을 모이게 하고 “8시간 노동은 절대로 안 된다”는

20) 자본 측은 1978년 5월, 캔디부에 자동기계를 도입하여 도급제 노동력(숙련 노동자)을 배치 전환·감축함으로써 시간과 사람, 장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 바 있다(순점순 1984, 45-50). 자본 측의 계산에서 도급제의 효용성은 자동화와 연동되어 낮아졌고 자동화가 노동시간 단축과 직결되지는 않았다.

주장을 했다. 8시간 노동 투쟁의 의지가 자본 측에게 파악된 것이다. 사실 상 투쟁은 시작된 셈이었다.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때를 더 기다리기보다 바로 “땃땃이” 싸우자는 견해가 강해졌다. 산선 회원 60여 명은 7월 17일, 회관에 모여서 “심각한 논의” 끝에 8시간 노동 투쟁의 개시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시기상조론을 편 인명진 목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해태제과 근로자 1979, 43; 순점순 1984, 79; 이은성 2019/08/07).²¹⁾ 비수기 막바지인 7월 30일, 남성 노동자들이 공장새마을 분임장들을 모아놓고 재차 “8시간 노동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7월 31일에는 생산부장이 와서 8시간 노동제 시행은 “불황을 넘기고” 할 것이라 통보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시점을 분명히 공식화해 달라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평상시 근무로 복귀하는 첫날인 8월 1일, 비스킷부 여성들은 자본 측의 태도와 상관없이 노동일 8시간을 행동으로 옮겼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가는 역할을 했어요. 앞장서서. ... 과자들이 컨베이어로 죽 나오는데 앞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과자들 위로 걸어 다녀야 하니까. ... 시간만 되면 제가 ... ‘올라가서 나가자!’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 처음에는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선봉에서. ... 진짜 피가 끓었어요. ... 다시 태어난 것 같고(한민아 2019/04/27).

21) 당시에 “과도한 욕심을 부린” 산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으나(장숙경 2013, 250-252) 이는 필자가 파악한 기초적 사실들과 배치된다.

4. 매개된 탄압

투쟁 주체들은 8월 3일부터 탄압 공세와 맞부딪쳤다. 그들이 탄압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 있는 사항을 주장했기에 “어지간한” 어려움 이후 승리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폭력”과 “공포”에 찬 “지옥”의 연속이었다(이은성 2019/08/07; 한민아 2019/04/27).

자본 측의 탄압 행위자들은 관리·감독직급 남성들이었다. 그리고 영등포공장은 물론 안양공장의 남성 노동자들이 동원됐다. 이들은 공장의 주요 통로·출입구들을 장악했고 제품 박스와 드럼통, 냉장고, 물공급차, 수송트럭까지 이용해 8시간 노동 후 퇴근을 막고자 했다. 8시간 노동의 의지를 공세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당연히 전체 여성들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8시간 노동을 행동화한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었던 반면에 공공연한 테러로 그들과 맞선 사람들은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반장직급 여성들이 평소 노동통제에서 첨병 역할을 했지만 8시간 노동 투쟁 국면에선 그렇지 않았다. 이사들을 비롯한 탄압 동원화(mobilization)의 주체/대상들은 여성이라면 누구든 남성에게 순종해야 마땅하고 남성의 완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적중하지만은 않았다.

남자들이 ... 복도부터 탈의실까지 짝 깔려 있었어요. ... 너무 무서웠는데, 무섭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하는데, 또 나가지더라고. 나가져. 모든 사람들의 뜻이라 그랬는지 ... 하나님께서 원해서 용기가 났는지 ... 8시간을 꼭 정착시

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이은성 2019/08/13).

남성들의 ‘힘’은 주먹질, 목조르기, 팔 비틀기, 넘어뜨려 밟기, 둘러싸고 뺨 때리기,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찢기, 기름 장갑으로 얼굴 문지르기, 몸 전체를 잡아 던지기 등 다양하게 표출됐다. 그런데 8시간 노동의 실천자들이 이와 함께 강렬히 경험한 것은 남성들의 ‘말’이었다. 그 하나가 욕설이었는데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연결되거나 짐승에 비유된 지독히 모멸적인 유형이었다. 장미화는 “태어나 처음 들어본” 말들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분하고 화가 났다”(장미화 2019/08/27). 투쟁을 지속한 여성들은 해당 남성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순점순 1984, 162-168).

또 하나는 남성들이 “한결같이” 반복한 “우리 처자식들을 너희가 먹여 살려라” 하는 요구였다. 남성들은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줄어들 것이고 회사가 적자 경영 끝에 폐업하여, “너희”와 달리 “처자식들”이 있는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강변했다.

나를 잡아 던져 버리더라고. ‘야. 이년아. 들어가라. ... 니가 우리 집 책임질 거냐. 니가 우리 아들딸 마누라까지 먹여 살릴 거냐. 나더러 각서를 쓰라는 거야(장미화 2019/08/27).

그들은 이른바 ‘남성부양자가족’을 당연한 규범/현실인 양 끊임없이 거론하면서 ‘후려쳐진’ 노동시간의 단가(저임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들

에게 여성들의 임금노동은 가계에 소소한 기여만을 하고 당사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결혼과 함께 종료될 대단찮은 돈벌이에 불과했다.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우선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들과 일치하지 않았을뿐더러 임금노동과 노동조건 개선의 가치들을 오로지 가족부양이란 척도에만 비추어 평가했다. 거기에는 같은 12시간이라지만 기술적 속성 면에서 판이한 여성/남성 노동들(직무의 성별 분할)이 부과한 하중들의 격차²²⁾를 포함해 동료 여성들이 감내해 온 고단한 일상에 대한 약간의 이해나 공감도 없었다. 8시간 노동의 실천자들은 노동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반문했다.

8시간 노동으로 살 수 없다면 살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지 ... 잔업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해태제과 여성 근로자 1979).

그리고 해태제과는 1970년대 내내 수익 증대와 투자 확대를 거듭하는 기업 경영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 흐름은 고속성장체제의 누적된 문제들과 제2차 오일 쇼크의 파장이 결합해 초래한 국민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다. 해태제과 경영진은 8시간 노동 투쟁과 맞

22) '기사'로 불린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과 동일 직급이었지만 기계 정비, 원료 배합, 전기·급수 관리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고정된 자리에서 날개의 제품 포장을 빠른 속도로 반복한 여성 노동자들과 달리 상당한 여유와 자유가 확보된 근무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선 국면에 39억 원 규모의 1년 순이익을 거두고 “신규 사업”, “대규모 공장 건립”, “플랜트 수출”을 추진했다(매일경제신문 1979/08/30, 6면; 1979/ 09/05, 5면).

자본 측은 8월 중순부터 새로운 책략을 써서 산선 회원들의 의지를 꺾고자 했다. 그 방법은 그들의 입사 소개자(추천인)²³들과 가족·친척들을 적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자본 측은 소개자에게 불이익을 예고하고²⁴ 가족·친척에게 거짓 정보와 금전을 제공해서²⁵ 투쟁 주체의 8시간 노동 포기를 요구하도록 자극했다. 이 탄압의 기술은 끔찍하고도 유효했다. 당초에 8시간 노동의 의지가 아주 강했던 이들조차 유사 고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12시간 노동으로 복귀하거나 사표를 내고 말았다. 새로운 방법이 자본의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의도를 매개한 소개자와 가족·친척의 태도가 간과될 수 없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특정 불이익의 위협에 직면해서, 또는 거짓 선전에 속아서 취한 수동적 범주에 그치지 않

-
- 23) 당시 해태제과 공장 취업은 대부분이 소개자(남성)를 통해 이루어졌다. 소개자는 해태제과 납품업자, 판매센터·직매장 운영자, 사원 등이었는데 일정액의 돈을 대가로 받았다. 그리고 소개자가 취업자의 가족·친척인 예들도 있었다.
 - 24) 그것은 “똑똑한 녀를 소개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 사표를 내라” 하는 식이었다(순점순 1984, 101).
 - 25) 생산 담당 이사의 명의로 고향 집에 발송된 전보는 이런 내용이었다. 당신네 “딸”이 “나쁜 단체에 가입”해서 “나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두면 감옥에” 간다.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전과자가 될 테니 “딸”을 빨리 데려가라(순점순 1984, 126-127). 과장직급 남성이 고향 집에 방문해서도 “과자 한 상자와 돈을 주면서” 비슷하게 말했다. “딸을 시집보내라 … 감방 가게 생겼다. 빨갱이 집단에 들어가 있으니 큰일 난다. 빨리 시집보내라”(장미화 2019/08/27).

았다.

8시간 노동의 제지란 목적이 달성된 경우를 보면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설복 과정 같은 것은 없었다. 반복해서 예고 없이 공장과 거주지에 들이닥쳐 욕설과 폭력을 퍼붓고 협박하면서 12시간 노동/퇴사를 요구하는 것이 그 방식이었다. 이때 소개자 남성들은 같은 말을 했다. “너희가 우리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라.” 그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 가능성을 무릅쓰면서 8시간 노동을 결행한 여성들의 입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 ‘남남도 아닌’ 가족·친척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납치 후 감금’을 서슴 없이 자행했다. 따라서 8시간 노동의 실천자 상당수에게 ‘탈출’이 필수였다. 가족·친척은 8시간 노동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역시 욕설을 쏟아내고 폭력을 가했다. 구술자 장미화가 껌부의 한 동료를 기억했다.

몸이 완전히 뺨이 돼버렸어. 뺨이. ... 팬티랑 브래지어 바람에 집에서 뛰어나왔어. 쌍문동인가 거기에서 맞고 왔는데.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당산동으로 온 거예요. ... 외삼촌이 소개자였어요. ... 외삼촌이 공장에 와서 애 먹살을 딱 잡고 머리채를 손에 감아서 돌려버리는 거야. 데굴데굴 굴렸죠. 거기서 발로 밟고 막 두드려 패고 질질 끌어서 차에 싣고 갔어요. ... 옷을 훌쩍 벗겨놓으면 도망가지 못할 줄 알았나 봐. 그래도 왔어요.(장미화 2019/08/27).

설령 납치와 감금, 폭력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8시간 노동을 실천하는 딸 또는 동생의 사정과 의사는 그냥 무시됐다. 캔디부 박점순의 예를

보면 오빠가 갑자기 공장에 와서 사표를 쓰도록 강요했고 즉석에서 퇴직금을 받은 후 그를 데려갔다. 이후 동료들은 박점순을 다시 볼 수 없었다(순점순 1984, 119-120).

가족·친척의 태도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김금순과 장미화의 경우처럼 부모가 회사 사람의 말에 앞서 당사자의 설명과 의사를 존중한 예들이 있다. 그들은 노조 조직부장이 “딸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냐”며 소리치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딸”이 곧 “전과자”가 될 것이라는 과장직 남성의 “협박”과 마주해서 “본인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순점순 1984, 139-141; 장미화 2019/08/27). 이는 가족·친척의 신뢰 또는 최소한의 이해가 해태제과 여성들의 투쟁 지속에 미친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인데 반대로 가족·친척이 그 투쟁의 대단히 현실적인 적들이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태제과 여성들은 8월 초 이후로 산선의 조력을 받아 선전 작업(호소문과 청원서, 진정서 등의 발송·배포, 교회 및 사회단체, 기독교방송국, 정당 등의 방문)을 병행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불구속 입건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이 지시했다는 시정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수사 및 사법 처리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에 탄압의 효과로 8시간 노동의 실천자들이 크게 줄었다. 그 대열은 15명밖에 되지 않았다.²⁶⁾ 이에 따라 공격적 탄압의 양상이 가라앉았지만 8시간

26) 수백 명에 달했던 그 인원은 8월 하순 이후 15명, 9월 12일 이후 18명, 10월 15일 이후 20명이 됐다(순점순 1984, 214-215).

노동의 실천자들은 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다른 동료들과의 접촉이 차단됐다. 그들은 매일 출근했고 8시간이 지나면 퇴근했다. 이 시기에 산선은 소중한 안식과 대화의 장소가 돼 주었다. 그들은 산선에서 목사·실무자들, 다른 공장의 회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 조언을 받았다(순점순 1984: 159, 200-201, 208; 장미화 2019/08/27; 이은성 2019/08/13, 09/04). 8시간 노동 투쟁은 지구전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그들은 크게 불안했고 무서웠으나 노동일 8시간이 “법에 나와 있으니” 승리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이은성 2019/08/13; 한민아 2019/05/25).

5. 승리와 투쟁의 의미

8시간 노동 투쟁의 주체들은 승리의 기운을 영똥하게도 시중 일간지에서 처음 접했다. 우선 1979년 9월 12일 자 「동아일보」에 전국화학노조연맹이 식품업체 중앙노사협의회에서 8시간 노동제 시행과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보전을 요구했고, 여기에 교섭 상대 9개 업체 대표들(해태제과, 서울식품 불참)이 응하여 추후 그 방안을 서로 협의·구체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으로 10월 4일 자 「한국일보」가 해태제과 이사장이 공장새마을 분임발표회의 결과(자동화를 비롯한 합리화 방안들과 조합될 때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를 바탕으로 선의의 결정을 내려서 8시간 노동제가 새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태제과 여성들은 공장 산선에서 서로 얼싸안고 울며 웃으며 기뻐했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

만도 없었다. 약속이 전해진 방식과 정황이 미심쩍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집행부나 자본 측의 성원들이 그동안 투쟁 당사자들과 만나서 소통·협의를 한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신문 보도들은 극심한 폭력사태를 포함한 7월 이후 투쟁의 경과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8시간 노동제가 경영진의 배려로 매끄러운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듯이 적었을 뿐이다. 더구나 「한국일보」의 기사는 기자가 취재 활동 없이 회사의 청탁을 받아 그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투쟁 주체들이 노조 측에 8시간 노동제 일정이 회사 내에 정식 공지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보도된 시한까지 12시간 노동으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8시간 노동을 실천했다. 해태제과 자본 및 식품업계 여타 자본들의 결정과 관련해 그들 내부의 논의와 계산이 어떠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동아일보 1979/09/12, 1면; 한국일보 1979/01/04, 6면; 순점순 1984, 178-186).

다행히 1980년 3월 2일부터 해태제과에서 8시간 노동제(1일 3교대)가 시행됐다. 기본 시간급의 인상도 이루어졌다(순점순 1984, 217-219). 산선 회원들은 회관에서 기념 다과회를 열고 자축했다(해태제과 근로자 일동 1980). 이제 해태제과 여성들은 짧은 주말여행을 비롯해 좀 더 쉬고 만나고 배울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김선희 2019/08/21; 장미화 2019/08/27). 이는 무엇보다 큰 고통과 공포, 외로움 속에서도 8시간 노동의 의사를 굽히지 않은 여성들이 투쟁을 지속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성과는 ‘노조다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혀주어 노조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기초를 마련했다(김선희 2019/07/31, 08/21; 장미화 2019/08/27). 그러나 해태제과 여성들의 승리가 값지면서도 제한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전술했듯이 자본 측은 노동시

간 단축을 자신들의 선의와 배려에 따른 결과로 위장하면서 끝까지 8시간 노동의 수행자들을 외면했다. 자본 측의 패배는 어떤 소극적 의례로도 시인되지 않았다. 폭력배와 다르지 않았던 관리·감독직급 및 노조 간부 몇몇이 오히려 승진·포상의 수혜를 입었다(순점순 1984, 216-217). 자본 측은 8시간 노동 투쟁을 경험한 이후 공장의 생산주의적(productivist) 정비에 힘썼다. 그들은 기존 노조와 결탁하여 휴일 노동 미참여자에 대한 상여금 삭감안을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시간의 실질적 재연장을 기도했고, 자동화 설비를 서두르면서 고용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기계 도입과 더불어 손노동 숙련자 감축, 일용직(기혼 여성) 고용, 사외 하청 등의 확대를 병행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다시 단순성과급제를 적용했다(순점순 1984, 263-270; 이은성 2019/09/04). 게다가 그들은 8시간 노동 투쟁 당시와 같은 책략들을 써서 노조 민주화의 노력을 좌절시켰다(해태제과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 1985; 김선희 2019/07/31, 08/21).

1979~1980년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은 우리에게 비판과 성찰의 중요한 계기들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나는 박정희 정부 시기 노동운동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들, 그리고 현 시기에도 재연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과 여성 혐오(misogyny)의 실상들을 의식하면서 특히 세 가지 점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은 노조운동이 아니었다. 국가기관과 크게 충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으로 아주 중요해진 '시간의 배분 및 구성'이란 삶의 의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했고 또 그 성과를 동일 업종의 기업들에 확산시켰다. 박정희 정부 시기

노동운동의 학문적 이해와 평가 작업은 그것이 조직적 진화를 밟은 단계나 정치화된 정도와는 별개로 당대의 경제성장이 유발한 사회의 질적 변화/지속에 좀 더 밀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은 산선 회원들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선 회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신봉자들이었다. 그들의 노동시간 단축 운동이 삶의 절실한 필요에서 출발했다면 그들의 '8시간 노동' 요구는 항상 근로기준법이란 실정법 안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았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실정법들, 즉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312호, 1971/12/27 제정)과 제4공화국 헌법(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노동조합법(법률 제 2706호, 1974/2/24 일부개정) 등이 자신들의 집단행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상황(김삼수 2002)에서도 준법 운동이란 원칙을 고수했고 그러한 법률적 환경을 계속 문제 삼지 않았다. 법을 지키라는 주장, 법을 지킨다는 다짐에는 그들의 핵심적 실천 논리가 담겨 있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노동운동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그 민주적 행위자들이 규범화한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그들의 외침(휴머니즘)을 근로기준법의 한계 범위, 그리고 그들의 법률(국가) 관념과 연결할 때에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은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전개됐다. YH무역 농성 사건(1979/08/09-11) 이후 국가는 산선 총무 인명진 목사를 구속·기소했고 외부 세력 침투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목 아래 해태제과를 포함한 업체 63곳에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경향신문 1979/09/14, 1면; 순점순 1984, 157-159). 그러나 경찰과 정보기관이 해태제과 8시간 노동 투쟁에 대해 취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주시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노골적으로 행해진 자본 측의 고강도 탄압을 고려하면 그것은 '불개입의 개입'이라 이를 만했다. 아마도 이는 1979년 8월 이후 형성된 특수한 정세가 만든 조건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필자가 환기하고자 하는 대목은 '국가의 시대'에 주어진 국가 개입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그 국가 개입 자체의 효과, 즉 다른 노동운동 사례들에서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남성 통치의 미시적 양상들이다.

당시에 해태제과 여성들에게 가해진 욕설과 강권은 탄압 동원화 주체/대상들이 생각한 남성성의 실천 형태들이었다. 탄압자들이 반복한 발화들은 "여성과 아이의 소속을 정하는" 질서인 가부장제(上野千鶴子 2012, 147-148)의 주요 측면을 예시했다. 그들의 남성성 실천들은 한편으로 남성가장의 가상/실재적 위기의식을 내포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자신의 소속'을 잇고 '피보호자의 도덕'을 위배한 여성에게 주는 징벌이었다. 이 점에서 그 실천들은 아주 긴 여성 혐오 역사의 작은 일화들이었다.²⁷⁾

남성 통치 및 여성 혐오는 운동의 주관적 동기화란 차원과는 관련이 없

27) 필자는 여성 혐오가 '여성 일반'에 대한 증오 또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기보다 '여성의 본분'을 저버림으로써 남성 통치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믿어지는 '나쁜 여성'을 통제·단속·응징·추방하는 행위라고 파악한다. 이럴 때 여성 혐오는 남성 통치체제의 규범들과 요구들을 집행(enforcing)하고 그 치안 유지(policing)를 담당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좋은 여성'에 대한 칭송 또는 포상과 양립한다(Manne 2019, 55-77). 여성 혐오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거나 오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유구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는 가부장제 주체들의 행위이다(Holland 2006; 이나영 2016). 최근이야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됐고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가부장제 주체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여성 혐오의 실상들을 당면시켰고 간파했으며 또한 의식적으로 강하게 부인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운동 억압의 중요한 매개항(mediator)으로 작동했다. 노동운동의 억압이 박정희 정부 시기 고속 경제성장의 한 조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남성 통치 및 여성 혐오가 그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 연구들이 노동문제, 노동운동과 남성 통치의 관계를 논할 때 노동시장 및 직무·직급의 분할과 노조 지도권의 독점 같은 성차별(sexism), 일상적 담론 및 폭력을 통한 공장 안팎의 여성 주체화(woman-subjectivation) 등 이른바 공적 영역의 문제들에 무게를 두었다면,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은 노동문제, 노동운동의 연구에서도 그와 함께 가족을 비롯한 사적 영역의 행위자들이 실천한 남성성과 가부장제 규범, 여성 혐오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보현

참고문헌

- 강남식. 2006. “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노동운동”. 이종구 외.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한울애플러스. 53-94.
- 김경희. 2006. “여성 노동자의 작업장 생활과 성별 분업”. 이종구 외.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한울애플러스. 3-52.
- 김무용. 2005. “1970년대 동일방직 노동운동의 젠더화와 저항의 정치”. 차성환 외. 『1970년대 민주운동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5-308.
- 김보현. 2017. “개발연대 중동건설현장 취업자의 경제와 정치: 돈과 노동, 조국과 가정”. 『사회와 역사』 제114호. 245-284.

- 김삼수. 2002. “박정희 정권 시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사회경제평론』 제18호. 255-287.
- 김연자. 2016. “한문으로 ‘노동자’ 쓰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서울역사편찬원. 『미싱은 돌고 도네 돌아가네』. 172-211.
- 김원. 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 김은실. 2002.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성별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183-212.
- 김준. 2006.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의식: 이른바 ‘모범근로자’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0호. 53-99.
- _____. 2006. “1974년 현대조선 노동자 ‘폭동’ 연구”. 『사회와 역사』 제69집. 83-120.
- 김현미. 2002.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45-78.
- 남화숙. 2014. 『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 후마니타스.
- 노동청. 1980. 『노동통계연감』.
- 류제철. 2010.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여가시간을 둘러싼 투쟁”. 『사회와 역사』 제85호. 53-82.
- 문승숙. 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 미상. 1980. “사건 경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33178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전태일』.
- 박현미. 2019. “발전국가 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노동자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의영. 2015. “무역과 한국경제의 성장”. 이제민 외. 『한국의 경제발전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21-503.
- 순점순(김금순). 1984. 『8시간 노동을 위하여: 해태제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기록』. 풀빛.
- 원풍모방해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 1988. 『민주노조 10년』. 풀빛.
- 영등포산업선교회. 1979. “해태제과 주야2교대 월급대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331204.
- 영등포산업선교회40년사기획위원회. 1998. 『영등포산업선교회4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산업선교회.

- 유경순. 2017.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젠더 정치: 청계피복노조의 여성 지도력 형성 시도와 좌절”. 『역사문제연구』 제21권 제2호. 407-448.
- 이나영. 2016. “여성 혐오와 젠더 차별, 페미니즘”. 『문화와 사회』 제22권. 147-186.
- 이옥순. 1990. 『나 이제 주인 되어』. 도서출판녹두.
- 이제민. 2015. “한국의 경제성장, 그 성공과 굴곡의 과정”. 이제민 외. 『한국의 경제발전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3-92.
- 장미경. 2006. “근대화와 1960-70년대의 여성 노동자”. 이종구 외.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71-305.
- _____. 2006.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와 계급정치”.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72-110.
- 장숙경. 2013.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선인.
- 전혜진. 2003. “미혼 공장 여성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동원. 2020. “‘나의 전체의 일부’인 인공지능: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 『기억과 전망』 제43호. 285-310.
- 조순경. 1994. “고용과 평등의 딜레마?”. 『한국여성학』 제10집. 181-209.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도서출판풀빛.
- 해태제과 근로자. 1979. “8시간 노동제와 관련한 해태제과 근로자의 진술서 모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332350.
- 해태제과 근로자 일동. 1980. “해태제과 8시간 노동제 시행 기념 다과회 초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016981.
- 해태제과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 1985.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일지: 1984. 11-1985.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114281.
- 해태제과 여성 근로자. 1979. “노동청장님께 드리는 해태제과 여성 근로자들의 탄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330700.
- 해태제과 진정인 일동. 1976. “해태제과 근로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30455.

해태제과 진정 근로자 일동. 1979. “해태제과 여성 근로자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강제노동을 중단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록번호 00331317.

上野千鶴子. 2012. 『여성혐오를 혐오한다(女ぎらい—ニッポンのミソジニ)』. 은행나무.

Arendt, Hannah. 1998[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lland, Jack. 2006. *A Brief History of Misogyny*. London: Robinson.

Manne, Kate. 2019. *Down Girl: The Logic of Misogyny*. London: Penguin Books.

Simmel, Georg. 2013[1900]. 『돈의 철학(Philosophie des Geldes)』. 도서출판길.

Sung-Kyung, Kim. 1997. “Productivity, Militancy and Femininity: Gendered Images of South Korean Women Factory Worker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3. No. 3. 8-44.

Weber, Max. 2001[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Routledge.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Abstract

Haitai Confectionery Women's Eight Hour Day Movement

Resistance against the Reduction of Life into Labor

Kim, Bo-Hyeon

Korean Politics, Sung Kyun Kwan University

This study describes the conditions, details, and actors of eight-hour day movement waged by the women at the Haitai Confectionery from July 1979 to February 1980 based on the facts identified from existing literature and through oral data collec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①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the status of 'time' (the conditions that gave rise to the movement), ② the Labor Standards Act (the main weapon wielded by the actors of the movement), ③ masculine governance(the order of oppression). In doing so, this study connects to the discussion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eight-hour day movement as well a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ovement and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 **Keywords:** Capitalism, Masculine governance, Labor, Time, Women

투고: 2021.9.20. 심사: 2021.10.13. 확정: 2021.11.8.